



## 연애의 법칙

최 차 해 · 산부인과 원장, 전문의

**산**부인과의 사랑을 찾는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면 서 좀 더 '현실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명제 아래 너무도 무책임한 연애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참 뜨거운 연애감정에 빠져있다고 했을 때, 과연 육체관계를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당연히 NO라고 대답하겠다.

그 대답의 이유는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있을까 ...

매우 타산적으로 들리겠지만 연애하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의 타산이 없어서는 안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불리한 점들이 있는지 설

명해 보자.

### 1. 연애 포기

연애하는 중에 육체관계를 맺으면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생긴 셈이다. 연애관계는 여기서 끝나 버리고, 당사자들끼리 아무리 '지금 현재 연애 중'이라고 자신을 속이려 해도, 피차에 육체를 알아버리고 난 감정이 그 이전처럼 순수한 상태로 유지될 리 없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연애를 포기하는 셈이다.

연애감정을 존중하고 그것을 승화시키고 싶다면, 아무리 강렬한 성욕에 시달리더라도 본능을 억제하기 위한 이성의 감정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 2. 임신의 불안

연애 중에 피임을 한다고 해도, 충동에 쫓기면서 서투른 솜씨로 하는 만큼 철저히 어렵다. 그래서 임신의 불안이 불순한 험잡물이 되어 연애감정을 오염시킨다.

섹스를 하고 난 후에는 늘, '혹시 임신이면 어쩌나' 하는 신중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일쑤이고, 혹 생리가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나오는 날에는 상상임신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된다. 그러다가 진짜 임신이라도 되는 날이면, 더 계속하고 싶은 연애관계라도 일찌감치 청산해야 할 판국에 이른다.

## 3. 임신 중절

피임에 실패해 임신이 되었다면 중절수술을 받아야 할 참인데, 이 시기에는 두 사람이 고민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려 대수술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임신으로 인해 규칙적이던 생리를 첫 달 거르게 되면 바로 임신 2개월로 접어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여성이 대부분이다. 수정 후 280일이 지나면 아기를 낳게 되는데, 임신기간을 배란기 전부터 카운트해 계산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지한 여성들은 첫 생리를 거르면 '이제 한달이겠지……' 하는 오판으로 임신 4개월이 한참 지난 후에나 병원을 찾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더구나 미숙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다면 위험성은 더 커진다.

자궁 입구를 기계로 벌리고 태아를 꺼내는 과정에서 자궁에 상처가 날 염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토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그녀를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노라는 남자가 과연 몇이나 될지 또한 의심스럽다.

## 4. 첫경험의 환경

육체관계를 맺으면 욕정은 충족되겠지만 연애 중에 대체 어디서 섹스를 하느냐가 문제다. 어차피 남의 눈을 피해서 궁상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니 사후에 돌이켜보면 씁쓸한 뒷맛

이 남겨질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바다가 보이는 멋진 테라스에서도 아니고, 돌만의 오붓한 공간도 아닌 낯설고 지저분한 곳에서 치루어진 첫 경험이 과연 생각처럼 아름다울 수만 있을까? 두 사람이 용케 결혼하더라도 그런 첫 경험의 추억은 개운치 못한 뉘우침으로 남겨질 게 틀림없다.

## 5. 남녀의 변화차이

육체관계를 맺으면 여자는 한결 애정이 깊어지지만, 남자의 열기는 차츰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것이 보통이다. 더구나 남자의 정열을 불러 일으킨 동기가 여자의 성적 매력에 있었다면 섹스 후에 남자의 기분은 일단락이 난다. 탐내던 것을 차지했으니 열기가 식는 것도 당연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까지 지냈던 결혼에 대한 열의조차 식어버리는 수도 있다. 남자는 여자의 육체를 알고 나면, 비로소 자기가 한 때의 도취였다고 깨닫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몸을 허락한 여자로서는 그리 손쉽게 단념이 되지 않는다. 남자 쪽에선 어찌하면 여자 와 손을 뗄까 궁리하는데 여자의 미련과 집념은 오히려 고조된다. 이때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6. 뺑소니 조심

육체관계를 가짐으로써 열기가 식었다는 예는 남자의 경우에는 흔하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극히 드물다. 그렇기에 여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아무리 결혼약속을 굳게 했더라도 연애 중에 마지막 선은 넘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는 것이다.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서……' 라는 것이 여자의 육체를 넘보는 남자의 상투적인 말법이다. 아무리 순진한 여자라도 그런 말에 마음이 약해져선 안된다. 나중에 뺑소니 친 남자를 원망하면서 발버둥 쳐 본들, 여성 자신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㉞